

(1 Timothy 3:8-13; Acts 6:1-7; Romans 16:1-2)

In a church in the USA, a minister was given the task of training deacons. As part of his preparation for the training course, he contacted the director of the local Philadelphia Restaurant School and asked, "What qualities do you look for in a waiter?" The director explained that, above all else, a good waiter is someone who notices what people need and gives it to them even before they ask. It may seem strange to compare deacons to restaurant personnel, but the connection is biblical. As we saw from Acts 6, the first deacons in the early church in Jerusalem were appointed to serve meals. The apostles used the Greek word for "deaconing" when they spoke of "serving tables". Deacons are the waiters of the church.

미국의 한 교회 목사가 집사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육 과정 준비의 일환으로, 그 지역의 필라델피아 레스토랑 학교 책임자에게 "웨이터에게 기대하는 자질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책임자는 무엇보다도 좋은 웨이터는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그들이 묻기 전에 알아채고 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사들과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연관성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 장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들은 음식을 서빙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사도들은 "테이블 서빙"을 말할 때 사용했던 그리스 단어를 "집사 일을 하는 것 (deaconing)"에 사용했습니다. 집사들은 교회의 웨이터인 것입니다.

The election of the first deacons explains the primary difference between elders and deacons. There is a practical division of labour between the only two ordained offices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Like the apostles, elders devote themselves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Acts 6:4). They labour in the spiritual work of intercession and proclamation. On the other hand, deacons, as their title indicates, serve. They take care of people's material needs in a spiritual way. Paul sets out the qualifications for deacons in his first letter to Timothy, where he says that a deacon must have a dignified life (v.8), a sound doctrine (vv.9-10), and a stable family (vv.11-12).

최초의 집사 선출은 장로들과 집사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임명되는 단지 두 개의 직분 사이에 실질적인 업무의 구분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장로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6:4). 그들은 중보기도와 말씀선포와 같은 영적인 사역에 힘씁니다. 반면에, 그들의 직함이나 나타내듯이, 집사들은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들을 돌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보낸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집사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신에서 바울은 집사들은 위엄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8 절), 견실한 교리 (9-10 절)와 안정된 가정 (11-12 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1. A Dignified Life

Paul begins by saying a deacon's life must be worthy of respect: "Deacons, likewise, are to be men worthy of respect, sincere, not indulging in wine, and not pursuing dishonest gain". As was the case with elders, God is more concerned with who deacons are – their character – than with what they do. Deacons must be dignified, in the sense of having a kind of personal dignity. They must be respectabl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They should have no mark against their name that would attract attention especially from the outside.

1. 위엄 있는 삶

바울은 집사들의 삶이 정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집사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다 집사들의 사람됨 - 그들의 성품 -을 더 중요시 하십니다. 집사들은 개인적인 품위를 갖추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위엄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교회 안팎으로 존경할만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특히 외부의 관심을 끌만한 그들의 이름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Deacons must be "sincere", literally "not double-tongued". They must not engage in double-talk that is, say one thing to one person and another thing to someone else. The word of a deacon ought to be one of the strongest guarantees in the church. Peopl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must be able to take deacons at their

(1 Timothy 3:8-13; Acts 6:1-7; Romans 16:1-2)

word. One reason deacons must be careful what they say is that they know so much about people's private and personal lives.

집사들은 문자 그대로 “일구이언 하지 않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한 사람에게 말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일구이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집사의 말은 교회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을만한 것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집사들의 말을 말 그대로 곧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사들이 그들이 하는 말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사람들의 사적인 개인 생활에 대해 매우 많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Deacons must “not” be “indulging in much wine”. As usual the Bible puts things in just the right way. Deacons are not forbidden to drink wine altogether, because God permits Christians to drink some wine (e.g. 1 Timothy 5:23). But he does want his people – especially his officers in his church – to be sober. Deacons are also not to be greedy for “dishonest gain”. Like elders, they must not be in love with money. Sometimes deacons have to handle money given for diaconal work. It would be a terrible breach of trust and sin to use it for personal advantage. By definition, a deacon is someone who serves, not someone who helps himself. In the use of money, as in the use of words and alcohol, a deacon must lead a dignified life.

집사들은 “술에 인 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그렇듯이 성경은 모든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이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23).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이 백성들이 – 특히 그분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집사들은 또한 “정직하지 않은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들처럼, 집사들도 돈을 사랑해서는 안됩니다. 때때로 집사들은 집사 사역을 위해 주어진 돈을 다뤄야 합니다. 이를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신뢰를 깨고 죄를 짓는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의미상, 집사는 그들 스스로를 돕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집사들은 돈의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말하는 것과 술을 마시는데 있어, 위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A Sound Doctrine

Qualifications for service begin with conduct, but that is not where they end. Deacons must have sound doctrine as well as dignified lives: “They must keep hold of the deep truths of the faith (or “the mystery of the faith”) with a clear conscience”. We see here that the deacon's practical service springs out of his faith in the gospel. The expression “the deep truths of the faith” or “the mystery of the faith” is a favourite one for Paul. It's not deep faith that cannot be understood. It's not mysterious in that it cannot be fathomed or shared. It can, but it only comes by a living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It's an expression that refers to the essential truths of the Christian faith – the basic doctrines of Christianity – especially as they relate to the sacrificial saving character of Jesus' death. No-one can make any sense out of that unless it is revealed to them by the inward light of the Holy Spirit. It comes by being born again.

2. 바른 교리

집사로 섬기기 위한 자격요건이 행동으로 시작하지만, 행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들은 위엄있는 삶뿐 아니라 바른 교리를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는 여기서 집사의 실질적 섬김이 복음 안의 그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깊은 진리” 혹은 “믿음의 신비”라는 표현은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은 믿음이 아닙니다. 헤아리거나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있지만, 이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살아있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크리스천 믿음의 근본적 진리 – 기독교의 기본 교리 -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특히 이것이 희생적인 구원의 성격을 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의 성령의 빛으로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한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The reason deacons have to be sound in their doctrine is their influence in the church. Since deacons are being put towards the front of the church's life and ministry it is important for them to understand the core values of the faith and of our theological position in the PCV. Although they are not required to prove themselves “able to teach”, there are some ways that a deacon may teach. For example, when deacons visit the sick or those in

(1 Timothy 3:8-13; Acts 6:1-7; Romans 16:1-2)

prison, they bring spiritual encouragement. Often they teach people how to manage their personal affairs in a biblical way, especially their finances. Deacons also teach others how to serve. They do not have to accomplish all of the mercy ministry themselves, but they are responsible to make sure that it all gets done. So by word and example they teach the church how to serve. Also, deacons should be ready to evangelize. Whenever they help the poor or the sick or the prisoner or the aged, they do 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ith a testimony to his saving power. Otherwise, the church can become just another social service. To carry out their ministry of discipleship and evangelism, deacons must hold on to the deep truths of the faith. And they are to do this with a clear conscience. If they ever find themselves beginning to doubt the fundamentals of the faith, they ought to seek the help and correction of their elders.

집사들이 바른 교훈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 내에서 갖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집사들은 교회 생활과 사역의 전면에 배치되므로 그들이 빅토리아 주 장로교(PCV)의 믿음과 신학적 입장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집사가 가르칠 수도 있는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사들이 병자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할 때, 그들은 영적인 격려를 줍니다. 집사들은 종종 그들의 개인적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성경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집사들은 또한 사람들에게 섬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집사들이 모든 공훈의 사역을 자신들이 다 완수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일이 다 잘 행해졌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과 본보기로 그들은 교회에 섬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또한 집사들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나 병자 혹은 죄수나 노인들을 도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증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단지 또 다른 사회 복지 서비스에 불과하게 됩니다. 제자도와 복음전도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집사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깨끗한 양심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 믿음의 근본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장로들의 도움과 바로잡음을 구해야 합니다.

The best way to find out if deacons are sound in their doctrine is to examine them before they take office: “They must first be tested; and then if there is nothing against them, let them serve as deacons”. The fact that deacons must be tested proves that their role in the church was official. The New Testament uses the word “deacon” (diakonos) loosely to describe anyone who serves. But at least by the end of Paul’s ministry, “deacon” had become a recognized office in the church. The Bible gives freedom by not specifying how such officers are to be examined. How they are scrutinized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church. Often, deacons prove their worth by serving in other ministries. This is a universal principle of Christian ministry: the way to prepare for greater service is to be diligent in some lesser ministry. Faithful ministry is both rewarded by God and recognized by the church. In Presbyterian churches, deacons are nominated by members of the church, examined by the elders, and then elected by the congregation. But however it is done, a deacon’s life and doctrine must be approved.

집사들이 바른 교훈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직분을 맡기 전에 먼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을 먼저 시험하여 본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들의 역할이 공식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신약에서는 “집사”(diakonos)라는 단어를 봉사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로 느슨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바울의 사역이 끝날 무렵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직분들이 어떻게 시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를 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면밀히 시험되는지는 교회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집사들은 종종 다른 사역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는 크리스천 사역의 보편적 원리입니다: 보다 큰 섬김을 위해 준비하는 방법은 보다 적은 사역에서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충실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상해주시며 교회에서 인정 받습니다. 장로 교회에서 집사들은 교회 신도들의 지명을 받아, 장로들의 검토를 거쳐, 회중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하지만 그 선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집사의 생활과 교리는 승인되어야 합니다.

3. Deacons’ Wives or Deaconesses?

(1 Timothy 3:8-13; Acts 6:1-7; Romans 16:1-2)

In verse 11 Paul says, “In the same way their wives are to be women worthy of respect, not malicious talkers but temperate and trustworthy in everything”. The Greek word Paul uses in this verse, translated “wives” in the NIV (gynaikas) can mean either “wives” or “women”. Some scholars suggest, therefore, that in verse 11 the Greek word does not refer to wives but to deaconesses or female deacons. So the question arises whether women served as deaconesses in the New Testament Church. The strongest reason for thinking that these women were deaconesses is the way they are introduced. Both verse 8 and verse 11 contain the same Greek word, translated “likewise” in v.8 and “in the same way” in v.11, which sounds as if it introduces a new office. Furthermore, these women are to be “worthy of respect” or “dignified”, which is the same phrase used to describe deacons back in v.8. Taken together, these parallels make it sound as if the women Paul had in mind were to fulfil a separate but equal office in the church. Furthermore, if the Bible meant “wives”, we might expect it to say “their wives” or “the wives” so as to eliminate any possibility of confusion but there is no possessive adjective (“their”) or definite article (“the”) in the Greek – unlike the NIV translation. Also one wonders why there should be instructions or qualifications for deacons’ wives but none for elders’ wives. Since the meaning of the Greek word “gynaikas” is not certain, perhaps it is best to translate it as “woman helpers”. Indeed,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these women were neither deacons’ wives, nor deaconesses or female deacons, but women who assisted the deacons. Undoubtedly the work of the deacons would involve situations where the presence of women would be an advantage.

3. 집사의 아내 혹은 여자 집사?

11 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NIV 에서 “아내들”이라고 번역된 이 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어 단어 (gynaikas)는 “아내들” 혹은 “여자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11 절에서 사용된 이 그리스어 단어가 아내들이 아니라 여자 집사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 교회에서 여성들이 집사로 섬겼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여성들이 집사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집사들로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8 절과 11 절 모두는 “이와 같이”라고 번역된 같은 그리스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마치 새로운 직분을 소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게다가 이 여성들은 “정숙하며” 또는 “품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앞서 8 절에서 집사들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것과 같은 구절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이러한 유사점들은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별도의 그러나 동등한 직분을 맡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일 성경이 “아내들”을 뜻했다면, 혹시 모를 혼동을 없애기 위해 아마도 “그들의 (their) 아내들” 혹은 “그 (the) 아내들”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지만, NIV 번역본과는 다르게 그리스어에는 소유 형용사 (“their”)나 정관사 (“the”)가 붙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왜 성경에 집사의 아내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자격은 적혀 있는데 장로의 아내에 대한 것은 없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gynaikas”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아마 그것을 “여성 조력자”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성들이 집사들의 아내들이나 여성 집사들이 아니라 단순히 집사들을 보조했던 여성들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집사들의 일은 여성이 함께 자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상황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However, if the office of deaconess is not established in 1 Timothy 3, the diaconal ministry of women is certainly present elsewhere in the Bible. New Testament women frequently carried out diaconal ministry, in the broad sense of the word. Consider Dorcas,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Acts 9:36). Or Tryphena and Tryphosa, women described as “women who work hard in the Lord” (Romans 16:12). Or especially there is Phoebe who Paul describes as “a servant of the church in Cenchrea” – literally a “deaconess”. In the PCV the office of deacon is open to both men and women and we have had a number of women serve in that office over the past 15 years here at Canterbury.

하지만, 만약 여자 집사의 직분이 디모데전서 3 장에서 확립되지 않았다면, 여성의 집사 사역은 분명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의 여성들은 자주 넓은 의미에서의 집사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 심히 많았던” (사도행전 9:36) 도르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주 안에서 수고한 여성들” (로마서 16:12)인 드루배나와 드루보사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 문자 그대로 “집사”로 표현한 뵈뵈가 있습니다. PCV 에서 집사 직분은 남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이곳 캔테베리 교회에서는 지난 15 년간 많은 여성들이 집사 직분을 섬겨왔습니다.

(1 Timothy 3:8-13; Acts 6:1-7; Romans 16:1-2)

If women are to serve, they must be qualified. Therefore, they should display the characteristics described in 1 Timothy 3:11. According to this verse, the women who serve in diaconal ministry must be “worthy of respect” or “dignified”. They must be women who are held in high regar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They must not be “malicious talkers” – the Greek word used by Paul here being one that is sometimes used of the devil himself (e.g. Revelation 12:9-10). The reason is clear – diaconal work often involves personal matters. The private affairs of an individual or household should remain private, except in so far as they require the spiritual care of elders or deacons. Women who serve must not be gossips. Also they must be “temperate” or “sober-minded”. This refers not simply to alcohol, but to self-control in every area of life. Deaconesses or women deacons must not be self-indulgent in their use of food, clothing or possessions. They must be stable emotionally. And these women must be “trustworthy in everything”. They must be utterly reliable and completely dependable. The ministry of such women is vital to the health of the church.

만일 여성이 섬기고자 한다면, 그들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디모데전서 3:11 에 설명된 그러한 성품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절에 따르면, 집사 직분을 섬기는 여성들은 “정숙하고” 또는 “품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팎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모함하지” 않아야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그리스 단어는 가끔 마귀가 자신을 묘사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2:9-10).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 집사의 일은 가끔 개인적 문제들이 연관됩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의 사적인 문제들은 사적으로 남아야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는 그것이 장로들 혹은 집사들의 영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집사로 섬기는 여성들은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절제하며” 혹은 “취하지 않고 정신이 또렷”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 집사들은 음식이나 의류 또는 그 소유물에 있어 탐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여성들은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믿을만하고 완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여성들의 사역은 교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4. A Stable Family

If they are married, deacons must have stable families: “A deacon must be the husband of but one wife and must manage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well” (v.12). Being the husband of but one wife has to do with marital fidelity. It does not mean that bachelors are ineligible for the office of deacon, but it does mean that a deacon is a one woman man. If he is unmarried, he must maintain sexual purity. If he is married, he must be monogamous. However, this qualification is also positive - as a husband he must love and serve his wife. And he must be a good father – meaning that he should discipline his children with love. Since households included servants in those days, this verse also touches on a man’s working relationships. How can a deacon be respectable in the church if he is not respectable in the market place? The reason for these high standards is that the church is “the household of God” (1 Timothy 3:15). Therefore, one of the best ways to tell if a man is ready to become a deacon is to see how he conducts his own household. A man who cannot manage his own household well will bring disorder to God’s house.

4. 안정된 가정

만일 그들이 결혼을 했다면, 집사들은 안정된 가정을 가져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2 절).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결혼 생활에 충실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미혼남성은 집사 직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는 한 여자만의 남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는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한 자라면, 그는 일부일처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조건은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 남편으로서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그는 좋은 아버지여야 합니다 – 이는 집사가 사랑으로 자녀들을 훈육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시대에 가정은 하인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 구절은 그 사람의 업무상 관계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집사가 그 일터에서 존경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에서 존중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높은 기준을 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15)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집사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말할 수

(1 Timothy 3:8-13; Acts 6:1-7; Romans 16:1-2)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무질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5. A Deacon's Reward

Diaconal work is very demanding. The standards of the office are difficult. Sometimes deacons and deaconesses get tired of meeting the same needs over and over again. Other times they are perplexed about what mercy means in a particular situation. Over time, they may become discouraged in their service. Perhaps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the office, the biblical qualifications for deacons end with an encouraging promise: "Those who have served well gain an excellent standing and great assurance in their faith in Christ Jesus" (v.13). Although much of a deacon's work is done in private, it is noticed and commended by God. Those who have served well gain an excellent standing in the eyes of the local church because of their loyal and loving service over many years. As a direct result they may be entrusted with greater responsibilities. Some male deacons may well become elders as they mature in the faith, but some of the best deacons should remain deacons for life because that is what they are called and gifted to do. The other advantage for faithful deacons is great assurance in their faith in Christ Jesus, which is an additional benefit to their own faith. This results from putting faith into practice in the service of the congregation, and finding Christ faithful in giving strength to those who humbly depend on him. Assurance of faith does not come through introspection, but through service. Those who labour for the Lord most actively love him most confidently.

5. 집사에 대한 보상

집사 직은 매우 부담이 큰 일입니다. 이 직분에 대한 규범은 어렵습니다. 간혹 집사들과 여성 집사들은 똑 같은 필요들을 반복해서 채워주는 일에 지칩니다. 또 다른 때에는 특정 상황에서 긍휼이 무엇을 뜻하는지 당혹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봉사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직분의 어려움 때문에 집사들에 대해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격려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13 절). 비록 집사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사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여러 해 동안의 충성되고 사랑이 담긴 섬김으로 인해 지역 교회의 눈에 매우 좋은 평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그들은 보다 큰 책임들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몇몇 남성 집사들은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짐에 따라 장로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훌륭한 집사들 중 몇몇은 자신들이 받은 소명과 받은 재능이 그것이기 때문에 평생 집사로 남아야 합니다. 충실한 집사에 대한 다른 이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큰 확신인데, 이는 그들 자신의 믿음에 추가적인 혜택입니다. 이는 회중을 섬기는 일에 있어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신실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합니다. 믿음의 확신은 자기성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 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은 가장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What should be made of the biblical qualifications for deacons? First, they are a guide for the church. They help Christians know what to look for when it comes time for deacons to be nominated or elected. Second, these qualifications are the divine standard for deacons. They are a reminder of how God expects them to behave and what he expects them to believe. Finally, these qualifications are a worthy goal for anyone who might eventually become an officer in the church. Make yourself available to serve the Lord. Ask the Holy Spirit to make your life dignified, your doctrine sound, and your family stable. Even if you never become a deacon, your time will not have been wasted. The qualifications for deacons are simply the virtues of a Christian exercised to a high degree.

그렇다면 집사에 대한 성경적인 자격요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집사들은 교회의 안내자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이 집사들을 지명하거나 선출해야 할 때가 왔을 때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이러한 자격요건들은 집사들에 대한 신성한 규범입니다. 이 요건들은 집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건들은 결국에 교회의 임원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시간을 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엄 있게 하고, 여러분의 교리를 바르게

(1 Timothy 3:8-13; Acts 6:1-7; Romans 16:1-2)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안정되게 하시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집사가 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시간은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들에 대한 요건들은 크리스천의 미덕이 단지 높은 수준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The diaconate is the office in the church that most closely resembles the servanthood of Jesus Christ. In fact, Jesus sometimes used the word “deacon” (diakonos) to describe his own ministry. This is the case with his crucial description of his ministry in Mark 10:43-45 –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The heart of our salvation is the servant heart of Jesus – his selfless, self-giving attitude – in ministering to our greatest need, the need for forgiveness and peace with God.

집사 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 (servanthood)를 가장 많이 닮은 교회의 직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종종 그 자신의 사역을 표현하기 위해 “집사” (diakonos)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 10:43-45 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서술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가장 큰 필요, 용서와 하나님과의 평강에 대한 필요를 보살피는 데 있어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 – 예수님의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태도입니다.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